

## 인구 유출에 유권자 감소·정치력 약화 중진 키우고 신진 발굴... 미래 열어야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 <5> 호남 정치의 쇠락

내년 총선 지역구 2석 감소 전망  
지역·세대 아우르는 리더십 시급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흐름은 점차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호남 정치의 쇠락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유출은 유권자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의 영향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노골적 차별과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 호남 민심의 결집에 힘입어 호남 정치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달아 창출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은 두 차례의 정권 창출에도 지역적 낙후 극복에 한계를 보임은 물론 정치적 비전 확보 및 신진 육성 등에 소홀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호남은 경부(서울-부산) 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화 과정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지역민이 대거 이동, 인구가 크게 줄며 정치·사회·경제 등의 근간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0년 호남 인구는 594만8000여 명으로 총 인구(2천498만9000명) 대비 23.8%를 차지했다. 수도권(519만3000명)은 20.7%, 영남(803만명) 32%, 충청(389만7000명) 15.5%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월말 현재 호남 인구(광주 142만 9000·전남 181만6000·전북 176만8000명)는 501만 여명에 불과, 총 인구(5143만명)의 9.7%에 불과했다. 1960년에 비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서울 942만4000·경기 1359만6000·인천 296만9000명)는 2598만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50.5%)을 넘어섰다.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영남(부산·울·경 770만, 대구·경북 495만)은 1265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25%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한 충청권 인구도 554만 명(10.7%)으로 호남을 넘어섰다. 수도권의 인구 폭발과 타 지역의 비교적 완만한 인구 비율 감소는 호남의 지방 소멸 위기가 더 크고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호남의 인구 유출은 유권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도 갈수록 위축되고



“조합장 선거 깨끗한 경쟁” 오는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광주지역본부 임원들이 14일 오후 광주 북구 석곡동 농협하나로마트 동광주점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호남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전남 1석, 전북 1석 등 적어도 2석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경우, 호남 의석수는 28석에서 26석(광주 8, 전남 9, 전북 9)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서울 49·경기 59·인천 13)은 111석에서 2~3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은 부울경(부산 18·울산 6·경남 16)이 40석, 대구·경북은 25석에 이른다. 대구·경북에서 1석이 줄어든다고 해도 영남의 의석수는 64석에 이른다. 충청권(대전 7, 세종 2, 충남 11, 충북 8)도 28석으로 호남보다 의석수가 더 많게 된다.

이로 인해 호남 정치권은 점차 정치적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호남이라는 지역 프레임에 극복할 리더십과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도는 지역 정치권의 퇴행을 부르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형성하며 기득권 체제 구축과 줄서기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며 호남 정치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소지역적 갈등, 안정적 지역구 확보를 위한 광주의 행정구역 개편 지연 등은 광주·전남 정치권의 무능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21대 국회 들어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최고위원 주자들이 단 한명도 지

도부에 진출하지 못한 것도 호남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호남 정치권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정치권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광주·전남과 전북 간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변화되는 사회적 가치로 ‘호남’이라는 지역적 동질감이 약해지면서 전국 호남 향우들의 정치적 결집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호남 정치권의 쇠락은 민심의 신뢰 저하와 몰갈리로 이어지고, 정치적 역량 약화가 반복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진보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을 진보 진영의 정치적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호남 정치권이 각성, 소통과 결집을 토대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적 기득권의 틀을 넘어 정권 창출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비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을 막지 않고는 호남의 미래도, 호남 정치의 활로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택과 집중의 강한 결집력으로 중진을 키우고 신진을 발굴, 미래를 열어가는 집단 지성의 발휘가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내용	비고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은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개인정보 비밀 보장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 개편 합의

여야, 이달 내 처리 전망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

는 법안 논의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산하기관 문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바이탈뷰티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